

Feng Zhang(2015), Chinese Hegemony, Chapter 7 The Value of Relationalism

‘중국학파’의 친아칭(秦亞青): 유교적 관계, 관계성, 관계주의

중국의 패권이라는 조건 하에 있었던 동아시아 역사: 국제 관계의 관계적 설명

- ➔ 관계적 접근법의 가치: 국제 관계에서의 관계성 탐구의 중요성
- 본질주의적인 신현실주의보다 나은 설명 가능
- 표의적(表意的, expressive) 합리성 + 도구적 합리성, 현실주의 IRT.
- 윤리적 관계주의 (또 하나의 비판적, 규범적 IRT)

‘관계성’이란 ‘배려(affection, 애정)와 의무의 관계들’로서 ‘인간적 국제 공동체’에 공헌

국제 관계의 관계성

관계적 접근법: 주류 IR 패러다임과 본질 다름. 단, Richard Ned Lebow의 문화 이론.
영국학과

관계주의란? 행위자의 아이덴티티, 역할, 이해 관계를 미리 구성해 놓지 않음.
관계에의 적응과 조절 과정 속의 동기 불화와 전략 유연성에 주목.
Cf. 신현실주의는 근본 동기로서 생존을 가정.

국제 관계 안의 표의적 합리성

합리성: ‘사회적 행동의 수단과 목적’에 관한 개념.

도구적 합리성은 복수다층적 원리를 이해하기에 부적합.

표의적 합리성은 관계적 배려와 의무, 그 인과관계를 결합시킴. Cf. Lebow
= 도구적 합리성에 담기지 않는 변수: 유교의 인, 례. 윤리.

유교의 비전(理想像)

윤리적 관계주의: 비판적 IRT

좋은 이론: 경험적, 비판적, 규범적. Ex. Christian Reus-Smit and Duncan Snidal

v 중국적 관계주의에서 이끄는 비판 이론: 행위자의 공존, 상호의존, 협력

- 개인주의 v 상호주의
- 관계적 관계주의의 규범적 위치: 개입, 감정이입, 배려, 의무 v 자기 이익
- 효율 + 가치; 유교의 의리 + 공리, 도, 의, 도통(道統)

윤리적 관계주의의 결점? 국제 관계의 ‘위계’(+설득력 부여)

➔ 현대 중국의 대외 정책에 적용 가능성

현대 중국 전략: 관계적 잠재력(가능성)

현대 중국의 대외 정책: 1978년 개방 이래 ‘자기 이익’ 등 도구적 접근법 → ‘韜光養晦’

1990년대 이후 ‘중국 부상’에 따라 변화: ‘자기 제어’의 ‘너그러운 benign’ 의향
‘포괄적 외교’

2000년대부터 전향적 접근법: ‘和諧世界’

중국 대외 정책을 개관하면 윤리적 관계주의의 비판 이론은 미흡한 점이 두 가지 있다.

- 1) 1990년대까지 ‘국가 이익’ 1990년대 후반부터 ‘상호 이익’ 표방. 그러나 여전히 있다.
- 2) 아직 ‘도’ ‘의’의 계발 능력이 약하다. 오늘날까지도 ‘국제 목표’가 불분명하다.
 - 현대 중국이 새롭고 독특한 ‘문화-정치적 국제 질서’를 제기한 적이 있었던가?
패권 이론에 대한 왕도(王道), ‘인도적 humane 권위’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 필요와 통합하지 못하는 한 중국 부상의 문화적

합의는 주변적이고 설득력이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중국 대외 정책에서 관계적 합리성의 비율이 증가함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 중국의 은혜로운 부상이 될지 주목해야 한다.

중국의 학파들

극단: 1) 토착주의, 좌파주의 2) 독단적 민족주의 3) 현실정치 학파

중도: 1) 예외주의 학파 2) 자유주의 학파

→ 윤리적 관계주의의 기획이 필요하다.

→ 중국의 노력만이 아니라 바깥 세계의 호응과 상호작용(reciprocity)이 필수적이다.

미중 대립: 균형과 동맹 ← 배타적 자기 이익 극대화의 도구적 전략일 뿐이다.

→ 윤리적 관계주의: 관계적 대외 정책, 우호 관계의 조건을 공동으로 얻을 수 있다.

예컨대 유교의 ‘서(恕, [己所不欲勿施於人]『논어』위령공)’

유교에는 역사적 실패가 있었으나 그 정치적 이념 속의 ‘관계적 원리’들은...

서로 다르지만 상호의존하는 이익. 유교적 관계주의는 상호 관계를 우선시. Roger Ames
조화, 호혜, 협력, 적응. Karl Popper의 ‘인도(人道, humaneness)’를 향하여...

중국적 관계주의가 체현된 포괄적 인문주의는 국제 관계의 도덕적 목표를 재건하
는 일에 공헌할 수 있다.